

공익단체 되어야 의무 다할 수 있다.



설 동 섭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1. 협회의 성격

현재 축산분야에서 각 가축별로 설립되어 있는 축산관계 협회는 생산자가 회원이 되고 협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생산자간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된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협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역할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협회의 성격은 그 나라와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협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리기는 심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처럼 협회는 회원인 생산자들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각 가축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강습회, 세미나 및 잡지

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주며 생산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만을 주업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회의 형태이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채란협회(Egg Board), 우유협회(Milk Board), 고기협회(Meat Board)와 같이 생산물을 중심으로 한 협회와 조합을 종합한 형태로 다소의 경제행위를 겸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협회는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축산물을 출하할 때 그 대금의 일부를 협회에 기금으로 적립케해서 생산물 가격이 급락해 경영이 어려울 때 보조하는 자조금(自助金, Check off System)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회는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량과 수출량을 자발적으로 조절

하며 정부의 역할을 끌어들이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이 시스템은 회원들의 생산량이 할당제로 쿼타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 그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소개한 형태의 협회가 소극적 조직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인 조직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 두가지 형태의 협회 중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협회의 형태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협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협회의 운영

생산자 협회는 생산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표여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을 잘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다.

협회를 리-드하는 것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분야이지만 이 두가지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금상첨화격이다. 협회를 운영하는 데는 역시 돈이 들게 마련이다. 운영비를 위하여 회원이 내는 회비, 전문잡지발행 소득, 용역비 등 정부지원 등에 의한 보조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100% 감당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란 일정한 규모와 인원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원이 적을 경우에는 자체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일정한 기간 어느 정도의 정부보

조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보조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 없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축산업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협회의 역할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려운 곳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어떤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거나 여건 성숙의 시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이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기본정신 하에서 서로 협조해서 어지간한 문제는 회원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반드시 협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만을 부탁하는 정도로 좀더 큰 것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는 매너가 필요하다. 회원들의 적은 문제에 협회가 집착하게 되면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적지 않다.

협회는 회원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봉사해야 하는 조직이므로 사회의 공기(公器)에 속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전달해 주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공익단체이어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협회의 건전한 발전은 곧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기본요소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서 협회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기**